

광주·전남 제조기업 “시장 정체·경쟁 격화로 신사업 포기”

광주상의 133곳 조사...58% 주력 사업 포화 ‘성숙기’ 평가
신사업 포기 이유, 확신 부족·자금 사정 악화·아이템 부재 順

광주·전남지역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주력 사업 (제품) 시장의 포화 등으로 신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133개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신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6%가 주력 사업의 시장 상황을 ‘성숙기’ (시장 포화 상태)로 평가했으며 ‘쇠퇴기’ (시장 감소)라고 응답한 기업도 24.8%에 달했다.

‘성장기’ (수요 증가)는 12.8%, ‘도입기’ (시장 초기)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제조업의 주력산업 시장 성장

단계, 경쟁 수준, 신사업 추진 여부·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장 내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경쟁 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7.9%였고, ‘경쟁업체가 턱밀까지 추격’이라는 응답도 21.1%에 이르는 등 시장정체 속에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비책도 미흡했다. 주력 사업을 대체할 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기업은 전체의 43.6%에 그쳤고 나머지 56.4%는 별도의 신사업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 내 대다수 기업이 기존 시장 포

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응 전략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지역 제조업체가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시장·사업성에 대한 확신 부족’ (37.4%)이 가장 많았고 ‘자금 등 경영 상황 악화’ (33.3%), ‘신사업 아이템 부재’ (20.0%)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기업은 ‘인력 등 제반 여건 부족’ (5.3%)과 ‘보수적인 경영 방침’ (4.0%)을 이유로 들었다.

신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R&D)’ (65.5%)을 가장 주요한 추진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외부 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 방식은 29.3%였으며,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추진은 1.7%에 그쳤다.

신사업에 대한 미래 기대전망도 밝지 않았다. 응

답 기업 중 48.3%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고 ‘계획대로 추진돼 성과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22.4%, ‘내부 또는 외부 요인에 따른 추진 차질’은 10.3%로 나타났다. 이미 시장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추진 자금 부족과 조달 애로’가 57.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판로 확보·유통 경로 개척 애로’ (46.6%), ‘신사업 시장 환경 불확실성’ (43.6%), ‘기술 개발·제품 완성도 부족’ (23.3%) 등이 신사업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팩스와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자제품·통신,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식음료, 화학·플라스틱 등 다양한 업종의 제조업체가 참여했다. 응답

기업의 89.5%가 중소기업이었으며 79.7%는 내수 기업으로 조사돼 지역 내 산업 구조의 현실도 함께 드러났다.

광주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제조기업은 현재의 시장 정체와 경쟁 격화 속에서 신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시장 정보, 인력 등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불확실성 높은 시장에서 기업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기술 개발 지원,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소비쿠폰 풀리자 소상공인 매출 2% 증가...안경 57% 폭증

KCD 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나 뛰었으며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천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으며, 면 요리 전문점 (25.5%), 외국어학원 (24.2%), 피자 (23.7%), 초밥·롤 전문점 (22.4%), 미용업 (21.2%), 스포츠·레저용품 (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으나,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로는 5.1%

늘었다고 밝혔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정책이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연합뉴스



전남건설협회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대책회의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 박경재 전남도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건설 현장의 재해 근절을 위해 실효

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근로자의 인식 전환, 안전 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회원사 안전관리교육, 사례집 배포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3분기 수출, 1년 전보다 3~4% 감소 전망”

수출입은행 “미 관세 영향 본격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3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3~4%가량 줄어든 167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은은 4월 ‘2025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3분기 전망’에서 이렇게 밝혔다.

올해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7.8로, 작년 동기보다 3.6포인트(p), 전분기 보다 7.0p 올랐다. 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지수다.

지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 둔화세를 나타내었으나, 지난 2분기 철

도·방위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수은은 지수가 상승했지만, 지수 구성 지표 가운데 기계 수출액을 제외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수출용 수입액 등은 하락세라며 “수출 경기 위축 신호는 계속 유지됐다”고 진단했다.

수은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상반기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670억~1680억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코리아 밸류업 지수’ 올해 들어 36% 상승

7월 15일 최고치 달성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도입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올해 들어 36%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4일 내놓은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025년 7월)’ 보고서에서 “올해 1~7월 밸류업 지수는 3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35.3%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밸류업 지수가 1306.37을 찍으며 지난해 9월 24일 도입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오전 11시 현재 지수는 1242.47이다.

지난달 말 기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개 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8341억원으로 지난해 11월 4일 최초 설정 시 금액인 4961억원보다 68.1% 증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기업 158개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평균 3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공시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각 시장지수 대비 각각 2.5%포인트, 1.4%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시현했다.

상법 개정을 비롯해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신세계백화점 쇼핑·여행 플랫폼 오픈 신세계백화점은 5일 온라인 쇼핑 채널 ‘비온드신세계’와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 전광판에 표시된 비아신세계 이미지. <신세계 백화점 제공>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567억달러 ‘7분기 연속 플러스’

K-뷰티 견인차 역할 톡톡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7만 8655개사로 늘어나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 567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K-뷰티’와 중고차 수출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 중소기업 최대 수출 품목인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4000만달러(+19.7%)에 달했다. 화장품은 미국(+13.8%)과 일본(+12.6%) 등 전통적 주력 시장과 함께 폴란드(+160.5%), UAE(+63.6%) 등 신흥국에서도 수출

이 크게 늘며 국가다변화를 이뤘다.

자동차는 수출액 39억 2000만달러(+73.7%)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중동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인기를 거뒀다. 특히 UAE(+97.7%), 튀르키예(+241.2%), 카자흐스탄(+106.3%) 등을 중심으로 중고차 수요가 확대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 영향으로 철강·알루미늄의 수출은 각각 16.3%,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소기업 수출 1위국(93억 3000만달러)을 유지했지만 상반기 일부 품목에서 관세 부담이 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수출도 순항 중이다. 상반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0% 증가한 5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중 화장품이 2억 9000만달러(+

13.7%)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온라인 총수출의 77.1%를 중소기업이 차지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세를 입증했다.

영국(+180.0%), 네덜란드(+104.6%) 등 10대 주요 수출국이 아닌 비주류 국가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SNS 기반 마케팅과 K-콘텐츠, K-컬처를 연계한 홍보 전략이 해외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패션·푸드 등 K-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다른 유망 품목을 발굴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수출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수출 초보 기업이 활용하기 좋다. 중소기업이 수출 준비할 때 온라인 수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신한은행 광주·전남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10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 확대

신한은행이 광주·전남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다. 선제적으로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수도권 외 전국 모든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 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또 타행 대한(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 취급도 모두 막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신한은행은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꾼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7.75 (+28.34)
↑ 코스닥	784.06 (+11.27)
↓ 금리 (국고채 3년)	2.421 (-0.057)
↓ 환율 (US D) 〈오후 5시 25분 기준〉	1385.10 (-16.30)